

IBM과 애플의 제휴 전망

지난 7월 세계 컴퓨터산업계에 충격을 던져준 IBM과 애플컴퓨터의 업무제휴 발표 이후, 그 구체적 제휴내용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업계의 세력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10월초에 알려진 구체적인 업무의 제휴 내용은
- ▼ IBM 네트워크와 애플의 매킨토시의 통합,
- ▼ Rise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칩의 공동개발,
- ▼ Open System 환경 「Power Open」의 개발,
- ▼ Multi Media회사의 설립,
- ▼ Object지향 S/W회사의 설립 등 다섯가지가 주된 사항들이다.

연내에 애플의 PC 매킨토시와 IBM의 네트워크를 접속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에서 부터 Multi Media의 기술개발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장래의 전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맨먼저 실현하려는 것은 매킨토시 PC의 IBM시스템에서의 적용, 즉 IBM네트워크와 매킨토시의 통합이다.

양사가 상호간에 H/W 및 S/W기술을 라이선트 공여함으로써 12월까지의 범용컴퓨터등을 중심으로 IBM시스템에서 매킨토시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의 시장점유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애플컴퓨터로서는 이러한 통합을 계기로 IBM 범용컴퓨터 이용자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이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즉 애플컴퓨터가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무처리 분야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다른 대규모 컴퓨터 메이커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IBM으로서도 기존의 애플컴퓨터 이용고객을 자사 시스템으로 흡수하는 이점이 있다.

RISC는 모듈라를 포함한 IBM, 애플컴퓨터 3개사가 PC, 워크스테이션에 탑재하기 위한 RISC마이크로 프로세서인 「Power PC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3개사는 Powr PC를 보급시키기 위해 새로운 업계단체를 리드해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스테이션 (WS) 분야에서는 선마이크로 시스템의 RISC칩 「SPARC」을 채용하는 선 연합에 도시바·후지쓰·마쓰시다가 참여해 있고, MIPS 컴퓨터 시스템의 「R4000」을 사용하는 「ACE 연합」에는 일본전기와 소니가 참가하고 있다.

WS의 RISC칩별 그룹

선 연합

선 마이크로 시스템
(SPARC)

- 도시바
- 후지쓰
- 마쓰시다

ACE 연합

IBM, 애플, 모토롤라
(Power-PC)

- 로터스
- 노 벨

신 연합

MIPS 컴퓨터시스템
(R 4000)

- DEC
- COMPAC
- 산타크루스
- 마이크로 소프트
- 일본전기
- 소 니

WS의 RISC칩별 그룹은 IBM 및 애플컴퓨터의 신연합이 등장함으로써 각 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에 새로운 선택의 폭이 생겨 또다시 유동할 가능성도 있다.

Multi Media 및 Object 지향 S/W 등 차세대기술 분야는 각 분야별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연구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대형 메이커들은 각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첨단분야의 기술은 개발하고 있어 IBM과 애플컴퓨터가 합작설립하는 회사에 추월당할 우려까지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IBM이 개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자 OS 세계를 견지하므로써 개방의 개념이 언젠가는 무의미해져 IBM과 애플컴퓨터의 제휴가 컴퓨터업계의 흐름을 크게 변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양사의 제휴로 세계 컴퓨터산업의 세력판도가 어디까지 바뀔 것인지는 그들 양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제휴의 성과가 나타날 몇년후가 될 것 같다.

